

다른 그림 찾기

다음 그림 중 서로 다른 부분 4군데를 찾아보세요. 정답은 다음 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재난대응 소집교육이 5월 8일 아산생명과학연구원 소강당에서 진행됐다. 초기/대피 지원반 직원 6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재난 시 임무 ▲환자 대피·이송법 ▲구호용품 사용법 등에 대한 교육이 진행됐다. 특히 이번 교육에서는 감염관리센터 재난 발생 상황을 대비해 4종 개인보호구 착용의법 교육이 이뤄졌다. 사진은 참석자들이 개인보호구 착용 실습을 하고 있는 모습.

지나호 정답



제723호 병원보에 실린 콘텐츠 중 독자들이 꼽은 가장 좋았던 코너는 'AMC 리얼스토리 - 저는 엄마이자, 암 환자입니다'였습니다.

이번 독자엽서는 외과간호1팀 이수정 사원이 추천했습니다. 좋은 의견을 담아 독자엽서를 보내주신 분들에게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

당첨되신 분들은 3개월 이내에 홍보팀을 방문해 상품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독자엽서 보내는 곳

제출 방법 동·서·신관 직원식당 내 배포함
마감 2024년 6월 1일(토)
발표 제727호(2024년 6월 15일 발간)

함께 만드는 뉴스 매거진

이름: _____ 소속: _____
전화번호: _____



독자 여러분의 참여가 더욱 알찬 뉴스매거진의 밑바탕이 됩니다.

- 소개하고 싶은 직원
- 특별한 취미를 가진 직원
- 동료와의 협업 사례
- 환자와의 감동적인 사연
- 소개하고 싶은 영화/뮤지컬/책
- 우리 부서 소식



가장 좋았던 코너는 무엇인가요? 뉴스매거진에 바라는 점은 무엇인가요?

독자를 위한 선물



원내 식당 10만 원 이용권
배아정(병리팀)

원내 식당 5만 원 이용권
김향연(연구지원팀)
양소연(수술간호팀)
정효주(심장검사팀)

아로마틱 핸드크림
서영희(외래간호팀)
유희망(진단검사의학팀)

캔버스 북커버
여영덕(심장검사팀)
임승택(진단검사의학팀)
채명주(방사선중양팀)
최경화(수술간호팀)

달마이어 1만 원 이용권
강령은(암병원간호2팀)
공희정(중앙공급팀)
김민정(외과간호2팀)
조혜란(수술간호팀)
최형우(내과간호2팀)



뉴스매거진 매월 1일·15일 발행

서울아산병원

VOL.725 2024. 5. 15



“신나고 힘이 난 최고의 하루였어요” “한 달째 입원 치료를 받으면서 너무 힘들었는데 오늘 레고 선물을 받고 아루미랑 사진도 찍을 수 있어서 정말 신나고 힘이 났어요. 최고의 하루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크론병으로 145병동에 입원 중인 고광재(9세) 군은 활짝 핀 미소와 함께 의료진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어린이날을 앞둔 5월 3일 어린이병원 외래와 병동에서 환아들을 위한 어린이날 기념행사가 진행됐다. 아이들은 선물을 들고 아루미와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며 웃음꽃을 피웠다. 어린이병원은 환아들의 치료 과정을 응원하고 격려하기 위해 선물 증정뿐 아니라 애니메이션 영화 상영 등의 시간도 마련했다. 사진은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소아청소년전문과 오석희 부교수, 보호자, 고태성 어린이병원장, 어린이병원간호팀 백우임 과장, 소아청소년전문과 최호정 임상전임강사, 고광재 군이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관련기사 3면)

- 02 NEWS 글로벌 혁신의료기술 실증지원센터 선정
- 06 AMC 리얼스토리 최정은, 무사히 졸업했습니다

- 10 사람 & 이야기 조혈모세포 기증 ‘고귀한 나눔’
- 14 감사우체통 선생님과 함께라면 거뜰히 이겨낼 수 있어요



서울아산병원 뉴스로 병원 소식을 한눈에

글로벌 혁신의료기술 실증지원센터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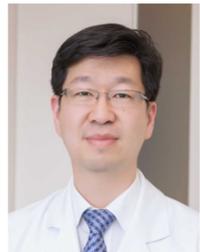


송상훈 교수

우리 병원이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글로벌 혁신의료기술 실증지원센터 지원 사업에 최근 선정됐다. 이번 사업은 2028년 12월까지 4년 9개월간 진행되며 47억 5천만 원의 연구비를 지원 받는다. 연구책임자를 맡은 비뇨의학과 송상훈 교수는 최재순 의공학연구소장

을 비롯해 이비인후과, 간담도외과, 정형외과, 성형외과 등 다양한 진료과의 의료진과 공동 연구를 진행한다. 우리 병원은 향후 ▲임상현장 기반 의료기기 공동 연구 시스템 개발 ▲의료기기 협력 네트워크 운영 ▲의료기기 실증 지원 운영 ▲의료기기 임상근거 정보 연구 등 실증지원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의료용 로봇 기반의 혁신의료기술 공동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스마트 웨어러블 기기 활용 플랫폼 개발 착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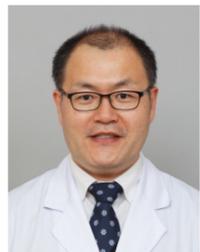


이중선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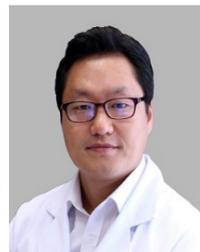
정신건강의학과 이중선 교수가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학술연구 용역사업인 '스마트 웨어러블 기기 기반 질병관리 모델 개발'의 연구책임자로 최근 선정됐다. 이번 사업은 스마트 웨어러블 기기로 수집할 수 있는 심박수, 심전도, 수면패턴 등 디지털 생체정보를 기반으

로 하는 정신건강 모니터링 플랫폼 개발을 목표로 한다. 연구팀은 우리 병원을 비롯한 8개 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및 공학자로 구성됐다. 스마트 웨어러블 기기로 수집되는 생체정보를 표준화해 정신건강 정밀 모니터링을 가능하게 하는 알고리즘과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어플리케이션과 연동시켜 의학적 근거 기반의 개인 맞춤형 정신건강 모니터링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산화철 나노입자의 세포사멸 조건 규명



백찬기 교수



김준기 부교수

약물 전달에 응용되는 산화철 나노입자는 세포에 유입된 후 세포소기관과 상호작용하면서 다양한 변화와 소멸 과정을 거치게 된다. 융합의학과

백찬기 교수, 김준기 부교수팀이 최근 산화철 나노입자의 유입과 소멸 과정을 통해 특이적으로 세포사멸을 유도할 수 있는 조건을 밝혀냈다.

연구팀은 초고해상도 공초점 현미경, 전자 현미경, 고감도 형광검출 기술을 통합해 세포 내부에 유입된 산화철 나노입자의 시간에 따른 위치 변화와 분해 과정을 단일 입자 수준에서

정밀분석했다. 그 결과 산화철 나노입자가 세포 내부로 유입된 후에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세포핵 주변에 집중되며, 이후 자가포식을 유도해 소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스크로브산과 결합한 경우에는 페롭토시스를 통해 세포사멸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존의 단순 형광이미징 기법으로는 단편적인 세포내 집단적 분포만 분석할 수 있었지만, 이번에 도입한 세 가지 고감도 및 초고해상도 분석시스템은 단일 입자 수준에서 세포내 나노입자를 추적함으로써 특정 조건의 세포사멸 등 세포내 변화를 정확히 밝혀낼 수 있었다. 앞으로 이 시스템은 다양한 약물전달용 나노입자의 맞춤형 설계에 대한 최적 조건을 제시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연구 결과는 나노과학 및 기술 분야에서 권위 있는 학술지인 '나노투데이'에 최근 게재되고 표지에 선정됐다.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최우수 운영기관



(왼쪽부터) 융합연구지원센터 김강현 대리, 김종재 아산생명과학연구원장, 김나영 동물실험윤리위원장, 김용길 융합연구지원센터소장, 융합연구지원센터 김시윤 사원, 허승호 과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아산생명과학연구원이 4월 23일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열린 우수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기관 시상식에서 최우수 운영기관으로 선정됐다. 아산생명과학연구원은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동물실험계획서 심의, 심의 후 감독, 실험자 교육 등 총 113항목에서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을 받았다. 검역본부는 윤리적 동물실험을 독려하고 동물실험 수행자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2018년부터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모범적으로 운영한 동물실험시행기관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어린이날 기념 환아 선물 전달



신관 1층 어린이병원 외래 앞에 마련된 포토부스에서 환아와 보호자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어린이병원 환아를 대상으로 한 어린이날 기념행사가 5월 3일 열렸다. 이날 어린이병원 외래에 내원한 환아와 입원 중인 환아

들은 레고 장난감 세트를 선물로 받았고, 어린이병원 외래 앞에 마련된 포토부스에서 아루미와 기념사진을 찍으며 추억을 남겼다. 소아청소년 완화의료 서비스인 '햇살나무' 프로그램실에서는 입원 환아를 대상으로 애니메이션 영화 상영이 진행됐다. 이번 행사에는 우리 병원 직원 22명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아루미 인형을 쓰고 봉사에 참여한 중환자간호팀 오해연 대리는 "환아들에게 어린이날의 설렘과 기쁨을 전할 수 있어서 보람을 느꼈다. 이번 행사가 환아들이 건강을 회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사우디아라비아 교육부 장관 일행 방문



(왼쪽부터) 압둘라 알루바이시 빈 파이잘대학 총장, 사야드 쿠르디 임상강사, 유시프 알비니안 교육부 장관, 산부인과 이사라 교수, 수술간호팀 박해일 과장.

사우디아라비아 유시프 알비니안 교육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

방문단이 5월 2일 우리 병원을 찾았다. 이번 방문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요청으로 한국-사우디 정부 간 제한적 의료행위 연수 관련 우수 의료기관 참관을 위해 마련됐다.

방문단은 산부인과 이사라 교수의 지도를 받고 있는 사야드 쿠르디 임상강사가 참여한 로봇 골반장기탈출증 수술과 정형외과 전인호 교수의 지도를 받고 있는 아흐메드 하시루프 임상강사가 참여한 어깨 관절경 수술을 참관하며 우리 병원의 고난도 술기의 우수성을 확인했다. 이어 우리 병원에서 연수 중인 사우디아라비아 의학자 22명에게 격려의 인사를 전했다.

동정

박성욱 의료원장 기부



박성욱 의료원장은 최근 중입자 치료기 도입을 위한 병원발전기금 5천만 원을 기부했다. 박 의료원장은 “우리 병원은 중증 암 치료와 연구를 선도해 나가고 있고 이를 통해 암환자들에게 희망을 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김태범 교수 글로벌 공동연구지원 선정



알레르기내과 김태범 교수가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주관하는 ‘의사과학자 글로벌 공동연구지원’ 대상에 선정됐다. 연구기간은 올해 5월부터 2028년까지로 연구비 약 72억 원을 지원 받는다. 영국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과 국제협력연구로 진행하며, 연구 제목은 ‘다중오믹스 디지털바이오 기반 치료불응성 중증천식 신약 타겟 개발’이다.

김채아 임상강사 우수구연상



내분비내과 김채아 임상강사가 4월 11일부터 3일간 그랜드 워커히 서울에서 열린 대한내분비학회 국제학술대회(SICEM 2024)에서 우수구연상을 받았다. 김 임상강사는 ‘다중 형광 면역조직화학을 이용한 진행성 갑상선암의 면역세포의 공간적 분포’를 주제로 이 상을 받았다.

이달의 후원자

단체/개인	
병원발전(중입자치료기 등)	
LK그룹	100,000,000원
김병규	1,000,000원
김태웅	5,000,000원
김태현	5,000,000원
남훈곤	10,000,000원
박윤구	100,000,000원
방강혁	19,354,380원
원일건설산업(주)	100,000,000원
윤인중	110,000,000원
이수진	100,000,000원
이지훈	100,000원
(주)정정당당	100,000,000원
(주)프러스퍼리티	100,000,000원
(주)피엠씨콤	100,000,000원
(주)합동화스너	15,000,000원

불우환자 지원	
김경진	1,000,000원
김광미	5,000,000원
김상은	300,000원
김양희	800,000원
민유주	3,000,000원
박복순	200,000원
이선영	5,000,000원
장현중	1,000,000원
제혁수	1,000,000원
(주)JYP엔터테인먼트	200,000,000원
진선국	2,000,000원
허은오	500,000원
홍승범	1,700,000원

연구	
심현수	10,000,000원
(주)필세스	100,000,000원

직원/직원가족	
불우환자 지원	
최재문	500,000원

- 2024년 4월 30일 기준, 가나다 순

※ 문의 : 대외협력팀 후원유닛 (원내 6207)

전남 구례에서 찾아가는 의료봉사



우리 병원 직원들이 전남 구례군에서 진행된 의료봉사에 참여하고 있다.

‘직원 추천 의료봉사가 4월 23일부터 이틀간 전라남도 구례군 광의면에서 진행됐다. 직원 추천 의료봉사는 직원이 추천하는 농어촌 의료취약 지역을 찾아가 무료 진료를 펼치는 활동이다. 이번 의료봉사에는 영양의학과 의사와 간호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 우리 병원 직원 15명이 참여했다.

의료봉사팀은 지역주민 113명을 대상으로 초음파 검사, 심전도 검사, 방사선 검사 및 영양수액 투여 등을 진행했다. 또한 질병 예방 교육과 함께 올바른 생활 습관에 대한 건강 교육을 실시했다.

임상시험으로 중증 난치성 환자에게 희망을



반준우 임상시험센터소장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에서 선정한 암 분야 세계 최상위인 외국 병원들의 홈페이지를 보면 공통적으로 임상시험에 대한 섹션이 있다. 내용에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임상시험의 혜택과 잠재적 위험 등 정보는 물론 그 목적이 환자를 더 건강하고 오래 살게 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임상시험을 통해 미래의 잠재적 표준 치료를 우선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음을 언급하기도 한다. 여기서 우리는 중증 난치성 환자에게 부여하는 임상시험 기회가 그 의료기관의 강점이나 차별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임을 유추할 수 있다.

반면 국내 의료기관 홈페이지에서는 임상시험에 대한 내용을 찾아 보기 어려운 편이다. 우리의 임상시험에 대한 시각과 관심을 방증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일부에서는 여전히 부정적인 인식도 있고 진료와는 동떨어진 단순 연구영역으로만 보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 보면 임상시험은 환자 접점의 진료 현장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아직 치료법이 없는 질환의 유일한 대안 치료로 행해지기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한다. 유방암 수술 후 여러 번 재발되어 고생했지만 임상시험에 참여해 3년째 재발없이 잘 생활하고 있는 50대 환자가 있다. 이 분은 처음 임상시험 얘기를 듣고 절망감에 진료실에서 의식을 잃기도 했다. 하지만 지금은 암환자 이야기를 그린 SNS 웹툰을 통해 환우들에게 공감과 위로를 전하며 주어진 삶의 기회에 감사하고 있다. 폐암 치료를 위해 여러 치료제를 써왔지만 실패해 낙심하던 어떤 환자는 검사 중 희귀 유전자 돌연변이임을 알게 됐고 유전

자 맞춤 표적 항암제 임상시험에 참여하게 됐다. 다행히 종양의 크기가 많이 줄어들었고 약제가 미국 식약처 승인을 받게 돼 안전한 임상시험약품을 무상으로 제공받으며 암과의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더 이상 치료제가 없어 절망하며 불안해 하던 어느 30대 환자는 2022년 5월 우리 병원 CAR-T 치료 1호로 국내 제약사 임상시험에 참여해 현재 만 2년 완전관해라는 기록을 향해 가고 있다.

처음 임상시험센터 직원들과 면담을 할 때 많은 직원들이 접점에서 환자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는 데에 높은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있음을 느꼈다. 앞서 소개한 이러한 경험들 때문이라 생각한다. 불치의 환자를 보며 많은 좌절과 아픔을 느끼기도 하지만 그래도 언젠가 새로운 대안이 될 치료제에 대한 희망을 두고 항상 밝은 에너지로 열심히 일하는 모습에 존경심이 들 때도 있다.

요즘 교수님들의 업무가 과중한 상황에서도 임상시험 성과 지표 수준을 잘 유지하고 있고 또 중증 난치성 질환에 대한 새로운 임상시험 제안이 들어올 때에도 여전히 적극적으로 검토해 참여하고 있다. 이는 환자에게 어떻게든 도움을 주고자 하는 마음과 함께 다른 병원에서는 할 수 없는 대안 치료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병원의 현 위상을 지키고자 하는 노력일 것이다. 지속적으로 이러한 뜻을 펼치기 위해서는 진료과의 의료진, 여러 유관부서의 도움과 협력이 꼭 필요하다. 환자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우리 모두의 열정과 노력을 모은다면 현재 우리 병원의 위상 유지는 물론 더 많은 환자들에게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선물할 수 있을 것이다.

최정은, 무사히 졸업했습니다!

수술 날은 매번 빠르게 돌아왔다. 척추측만증을 안고 태어난 정은이(13)는 척추 성장에 맞춰 1년에 두 번씩 수술을 받았다. 벌써 10년째 끝이 오긴 할까 싶으면서도 수백 번 상상하던 최종 수술 날이 드디어 찾아왔다. 정은이는 10년 전 수술을 막 시작하던 자신에게 하고 싶은 말로 소감을 대신했다. “앞으로 오랫동안 수술할 거고 사람들의 시선도 좋지 않고 많이 오로울 거야. 그런데 생각보다 괜찮기도 하고 그렇게 힘들지도 않고 병원에서 좋은 분들을 만날 테니 10년간 잘 버텨보자!”

모든 순간이 도전

정형외과 황창주 교수는 오래전 정은이의 검사 사진을 모니터에 띄웠다. “돌도 되지 않았을 때의 척추가 이미 60도였어요. 누가 봐도 심한 측만증이었죠.” 척추 모양도 문제지만 호흡 곤란이나 폐부전 등으로 이어져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었다. 그러나 당시 국내엔 치료법이 없었다. 의료진은 갈비뼈와 척추를 연결해 성장을 보존하며 교정해 나갈 기구를 수소문했고 이를 개발한 미국의 교수에게 초청 수술을 제안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 수술 필요성을 설득했다. 1년여의 준비 끝에 이제 막 세 돌을 넘긴 정은이는 국내 최초 VEPTR(인공 확장형 금속 늑골 수술법) 수술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이 수술은 시작에 불과했다. 반년마다 수술과 장비 보수 교체가 이어졌다. 뼈가 워낙 약해 기구는 쉽게 빠졌고, 척추가 들러붙으며 몸의 균형이 무너지기 일쑤였다. “의료진으로서 매 순간이 도전이었어요. 수술 할 때마다 기대대로 되지 않아 해결책을 찾아야 했죠. 마지막 수술에선 척추 하나를 완전히 들어내야 했어요.” 치료이긴 하지만 아이가 느낄 고통을 떠올리면 황 교수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그런데도 정은이는 만날 때마다 밝은 모습이었다. “고맙고 대견했죠. 끝까지 치료해 내고 싶은 욕심도 들고 정은이가 잘 견뎌 주기를 항상 기도했습니다. 정은이는 저에게 특별한 환자였으니까요.”

엄마도 시간이 필요해

엄마는 임신 기간 중에 태아에 문제가 있는 걸 알았다. 각종 검사를 받으며 울기도 많이 울었다. “지금 생각하면 괜한 일을 했어요. 장애가 있다고 아이를 포기할 것도 아닌데.” 낳아서 키우다 보면 나아질지 모른다는 엄마의 희망은 매일 무너져 내렸다. 정은이의 허리는 점점 더 휘어져 까치발을 들고 걸었고 시선도 틀어졌다. 보조기로는 치료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미영 전문간호사님께 전화해 ‘내가 뭘 잘못해서 이렇게 아픈 아이가 태어난 걸까요?’라며 운 적도 있어요. 엄마 때문이 아니니 흔들리지 말라는 이야기가 큰 용기가 되더라고요.”

의료진의 노력 끝에 국내 최초의 수술을 받을 기회가 찾아왔다. 엄마는 행운을 잡았다는 기쁨과 가나긴 치료를 시작하는 두려움이 동시에 스쳤다. 불과 네 살인 딸에게 수술을 설명할 방법도 알지 못했다. “정은아, 의사 선생님처럼 우주선을 타러 갈 거야!” 순순히 우주선에 승선한 정은이가 깊은 잠에 빠진 사이, 의료진은 S자로 휘어 척추에 2개의 장치를 고정시켰다. 엄마는 물 한 모금도 입에 대지 않고 수술이 끝나기만을 기다렸다.

일순간에 키가 쑥 크거나 허리가 곧아질 순 없었다. 엄마는 정은이의 체형을 가리는 화려하고 큰 원피스를 입고 항상 안거나 입고 다녔다. “어느 날 문득 제가 남의 시선을 의식할수록 정은이도 움츠러든다는 걸 알았어요.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정신이 번뜩 들더라고요. 딸의 질병에 당당해지기까지 5년은 걸린 거 같아요. ‘엄마가 아프게 태어나게 해서 미안해하면 아프게 태어나서 내가 더 미안하지’라는 정은이를 보며 버틸 수 있었어요.”



설움과 두려움의 성장통

“저도 달리고 싶죠~” 정은이는 체육 시간이면 벤치에 앉아 구경하는 게 전부였다. 오래 걸을 수 없어 체험학습은 늘 불참이었다. 그러다 보니 친구들이 귀찮아하는 대피 훈련마저 부러웠다. 새 학년이 되면 ‘넌 장애인이야?’ ‘혹시 죽을병에 걸렸어?’라는 질문부터 마주했다. 그때마다 꼭 참았다가 집에 가서 울었다. 몇 번의 새 학년을 맞이하고 나서야 당당히 대답할 수 있었다. “심하게 아픈 것도 아니고 불치병도 아냐. 언젠간 나을 감기 같은 거지!” 그런데 수술 후 통증만은 익숙해지지 않았다. 마취에서 깰 때, 그리고 진통제를 맞고 나면 속이 울렁거리고 아팠다. “괜찮아?”라고 묻는 엄마에게 “괜찮을 리 없잖아...” 날카롭게 답하기도 했다. 엄마는 수술이 힘들면 그만둬도 된다고 하지만 조금이라도 허리가 펴지고 키가 크려면 어쩔 수 없다는 걸 알기에 더 속이 상했다. 수술 날이 다가오면 악몽도 찾아왔다. 밤 중에 안방 침대로 들어가 얼굴을 파묻고 우는 날이 많았다. “엄마, 내가 죽는 꿈을 꿨어. 수술하고 못 일어나면 어떡하지?” “엄마가 수술실 밖에서 기다릴 거야. 너도, 나도 어디 안 가! 그러니까 교수님만 믿자. 알았지?”

두근두근 졸업식

지난해 11월 최종 수술을 받고 3개월간 안정을 취했다. 어릴 때부터 ‘뼈가 약해서 무리하면 안 돼’라는 말을 수없이 들어온 정은이는 보조기를 풀려니 불안한 마음이 들었다. 그러나 허리는 제법 굳게 서있었고 더 이상 까치발을 들지 않아도 됐다. “수술 부위만 잘 굳으면 추가 수술이나 치료는 없을 거야. 그동안 수고 많았어. 정은아 이제 졸업하자!” 황 교수의 선언에 정은이는 얼어붙었다. 엄마는 이미 울고 있었다. “정은이에게 수술 기회를 주신 덕분에 이런 날도 오네요!” 오랜만의 등교 날. 우연히 마주친 남학생이 “너 못 본 사이에 허리가 왜 이렇게 펴졌어? 신기해!”라며 호들갑이었다. 선생님들도 정은이의 변화를 금세 알아보았다. “이제 체육 시간에 뭘 수 있겠네!” 정은이는 모두의 축하를 엄마에게 들려주었다. ‘나 지금 무지 행복해!’라는 말을 하지 않아도 엄마는 다 알 것 같았다.

● Storytelling Writer 홍누리

※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질병이 삶을 짓누를 때 기꺼이 희망과 위로의 동행자가 되어준 서울아산병원. ‘AMC 리얼스토리’ 코너는 험난한 치료 과정을 이겨내고 인생의 두 번째 기회를 만난 사람들과 우리 병원 의료진의 진솔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치매, 원인에 따라 치료법도 다릅니다



신경과 임재성 부교수



치매와 경도인지장애

치매란 뇌의 퇴행성 질환 또는 혈관 질환 등으로 인해 기억, 언어, 공간지각, 집중, 판단력 등을 포함한 다양한 인지기능에 장애가 생기고 이로 인해 일상생활을 이전처럼 영위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한다. 이전에는 노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의학의 발전으로 특정 단백질 이상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생물학적 질환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최근에는 발병한지 얼마 안 된 시기에 내원하는 편이라 초진 당시 치매보다는 그 전단계인 경도인지장애로 진단되는 경우가 많다. 경도인지장애는 인지기능은 저하됐지만 치매 환자들과는 달리 아직 일상생활에 지장은 없는 상태를 말한다. 경도인지장애가 치매의 전 단계라고는 하지만 원인에 따라 치매로 악화되지 않고 다시 정상으로 회복되기도 한다.

치매를 유발하는 다양한 원인

알츠하이머병이 치매의 원인질환 중 가장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치매라고 하면 기억력 저하를 먼저 떠올리게 된다. 이는 알츠하이머병 비율이 치매 증상을 일으키는 원인 질환들 중 가장 많아서 생긴 오해이다. 사실 알츠하이머병은 치매와 동의어가 아니라 치매 증상의 원인 중 하나이다. 알츠하이머병이 진행되어 이전과 같은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상태가 돼서야 '치매'에 걸렸다고 말한다. 알츠하이머병 외에도 여러 원인들이 치매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 알츠하이머병 다음으로 흔한 것은 뇌졸중 후 발생할 수 있는 혈관치매다. 이외에도 파킨슨병치매, 루이소체치매, 전두측두치매, 다양한 내과적 질환으로 인한 치매, 알코올이나 약물 때문에 생기는 치매 등 여러 원인들이 있으며 원인별 증상도 다양하다. 알츠하이머병치매의 경우 단기 기억력 저하가 뚜렷하다. 방금 있었던 일도 잊고 여러 번 질문하

거나 익숙한 길에서도 헤매는 등의 증상을 보인다. 혈관치매의 경우는 질환 초기 기억력 저하가 알츠하이머병처럼 심하진 않으나 성격의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다. 조용하고 온순하던 사람이 쉽게 화를 내거나 가족이나 친구들과 자주 다투고 폭력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전두측두치매도 혈관치매와 유사하게 초기에 성격변화가 두드러지고 MRI 검사에서 뚜렷한 뇌경색이나 뇌출혈 증거가 없으며 발병 연령이 50대로 비교적 이르다는 특성이 있다. 전두측두치매의 또 다른 유형의 경우 언어기능이 주로 손상되어 말의 유창성이나 단어 이해력이 떨어지는 등의 증상이 초기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오히려 기억력은 비교적 좋아 진료실에서 보호자들이 "기억력은 저보다 더 좋아요"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는 병의 원인이 기억보다는 언어 기능을 담당하는 뇌부위를 주로 손상시키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파킨슨병과 동반되어 발생하는 치매 증상도 있다. 파킨슨병이 먼저 발병하고 이후 치매 증상이 1년 이상 간격을 두고 발생하는 경우를 파킨슨병치매, 반대로 치매 증상이 먼저 생기고 이후 파킨슨병 증상이 발현하는 경우를 루이소체치매라고 구분하기도 한다. 루이소체치매의 경우 증상의 변동성이 심해 어떤 날에는 너무 정상적인 모습을 보여 치매 환자가 맞나 싶다가도 어떤 날에는 심각한 치매 증상을 보인다. 또한 알츠하이머병치매 환자들이 겪는 벌레가 기어다니는 정도의 환시가 아니라 실제 없는 물건이나 사람이 뚜렷하게 보이는 생생한 환시를 경험하기도 한다. 추가 연구가 필요하긴 하나 수면 중 잠꼬대가 매우 심한 경우는 렘수면장애일 수 있는데 이러한 렘수면장애가 루이소체치매, 파킨슨병치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보고된 바 있다. 그밖에 기운이 없고 쉽게 추위를 타는 등 내과적 증상이 동반되는 갑상선호르몬부족증에 의한 치매, 미끄러운 길에서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혔는데 당시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다가 수일에서 수개월에 걸쳐 서서히 인지기능과 보행능력이 악화되는 경막하출혈에 의한 치매 등이 있다.

원인에 따른 맞춤형 치료

이렇듯 원인이 다양하기 때문에 치료법도 매우 다양하다. 알츠하이머병치매에 흔히 사용하는 도네페질과 같은 콜린분해효소억제제는 전두측두치매 환자들에게 투약할 경우 과도한 흥분과 더불어 공격성이 증가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투약을 권고하지 않는다. 또한 루이소체치매나 파킨슨병치매 환자에게는 콜린분해효소억제제 중에서도 리바스티그민이라는 특정 약물이 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갑상선기능저하증, 매독, 비타민 결핍증, 만성경막하출혈 등도 치매의 원인이 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적절한 내과 혹은 외과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 치매 증상에 대해 병원에서 다양한 검사를 하는 이유는 정확한 질환의 원인을 감별해 각 환자에 맞는 최적의 치료를 결정하기 위함이다. 우려되는 증상이 보여 가족들이 걱정하는 마음에 검사를 권유해도 '어차피 완치도 안되고 치료도 다 똑같은데 뭐라는 생각에 병원을 늦게 찾는 환자들이 있어 안타깝다. 치매 증상이 다양하고 원인질환에 따라 치료방향이 다를 수 있음을 이해하는 것이 질환의 악화를 늦추고 합병증을 막는 길임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조혈모세포 기증 ‘고귀한 나눔’

조혈모세포는 모든 혈액세포를 만들어내는 능력을 가진 ‘어머니 세포’이다. 백혈병 같은 혈액암 환자들은 조혈모세포가 부족하거나 제 기능을 하지 못해 건강을 유지하기 어려운데 최근 혈액암 환자를 위해 조혈모세포를 기증한 직원이 있다는 소식이 편집실로 전해졌다. 주인공인 **내과간호2팀 송재민 사원**을 만나 조혈모세포 기증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편집실>



조혈모세포 기증으로 받은 감사패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송재민 사원.

조혈모세포를 기증한 계기는

대학생 때부터 꾸준히 헌혈을 해오고 있는데 조혈모세포 기증이 혈액암을 앓는 환자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73병동에서 근무하며 혈액암 환자를 간호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얘기가 더욱 마음에 와 닿았다. 조혈모세포 이식을 받으면 충분히 건강을 되찾을 수 있는 환자들을 보면서 힘이 되어 주고 싶었다. 그래서 기증 신청을 했고 조직적합성항원(HLA)형이 일치하는 환자가 생겼다는 연락을 받자마자 바로 혈액원으로 향했다.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먼저 조혈모세포 기증희망 등록 신청을 한 뒤 HLA 검사용 혈액을 채혈한다. 검사 결과를 등록해놓으면 나중에 HLA형이 일치하는 환자가 발생했을 때 연락이 오고 최종 의사를 확인한다. 기증자가 최종 동의를 하면 입원을 한 뒤 채혈, 엑스레

이 등 여러 검사를 하고 조혈모세포 생성을 촉진하는 주사를 맞는다. 채취 방법은 헌혈과 동일하며 4~5시간 정도 소요된다. 퇴원 후 곧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하고 조혈모세포는 2~3주 이내에 회복된다.

기증을 하며 느낀 점은

환자와 기증자 간 HLA형이 일치할 확률은 매우 낮다. 부모와 자식 간 5% 이내, 형제자매 간 25% 이내, 타인 간 일치할 확률은 수천에서 수만 명 중 1명에 불과할 정도다. 이렇게 낮은 확률에도 나와 HLA형이 일치하는 환자에게 기증을 할 수 있어 뜻깊었다. 그리고 간호사가 된 이후 크게 아픈 적이 없었는데 이번 조혈모세포 기증을 하면서 처음 입원을 했다. 환자의 입장이 되어보니 의료진의 따뜻한 말과 배려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새삼 깨닫게 됐다. 입원기간 동안 의사, 간호사 선생님들이 해주는 자세한 설명과 힘을 북돋아주는 격려 덕분에 기증을 잘 해낼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이번 기회를 통해 어떤 간호사가 되어야 하는지 스스로를 돌아켜볼 수 있어 더욱 의미가 있었다.

전하고 싶은 말은

기증 전후로 내 건강 상태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근무 중에 여러 모로 배려해준 동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조혈모세포 기증은 가족 외 타인에게는 평생에 단 한 번만 가능하기 때문에 더욱 고귀한 나눔이라고 생각한다.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일에 더욱 많은 직원들이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 앞으로도 헌혈을 계속하며 생명나눔을 실천하고, 따뜻한 공감과 배려로 환자 곁을 지키는 간호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최고의 답을 찾기 위한 소통의 중요성



재활의학팀 김수빈 대리

최근 노년 환자가 급증하면서 고령 친화적인 의료 서비스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우리 병원 역시 노년 환자 전문 진료 시스템을 갖추고 4M(Matters, Medication, Mentation, Mobility)을 기반으로 한 시니어환자위원회(AMCS)를 운영하는 등 초고령 사회를 준비하고 있다. 해외 선진병원에서는 노년 환자를 위한 맞춤형 재활치료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배우고 싶어 지난해 11월 미국 애틀랜타에 있는 에모리 대학병원을 비롯한 5개 병원으로 연수를 다녀왔다.

에모리 대학병원 의료진은 병실과 중환자실을 직접 찾아 다니며 1:1 재활치료를 주로 진행했다. **재활치료에 필요한 기구와 장비는 개인별로 가지고 다니면서 관리했고, 면역력과 기능적으로 약한 노년 환자를 치료할 때 감염관리를 철저하게 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 또한 환자와 보호자에게 제공하는 낙상 예방, 운동 프로그램 등의 자료들이 알차게 구성되어 있었다. 에모리 대학병원에서 환자 교육을 담당하는 간호사는 “환자와 보호자들이 교육을 받은 뒤 나중에 혼자서도 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도 치료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재활치료에서는 연속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니까요”라고 말했다. 우리 병원도 노년 환자를 위한 다양한 교육 자료를 제작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앞으로 보다 쉽게 이해하고 따라 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추가로 제작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노년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그룹 재활 치료 시스템도 눈길을 끌었다.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가 함께 참여해 각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환자에게 맞춤형 재활 치료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재활치료 내내 환자들이 불편함을 느끼**

는 부분이나 궁금한 점을 물어보면 의료진이 환자 상태와 치료 목표 등에 대해 서로 소통하며 환자를 위한 최고의 답을 찾아내기 위해 힘을 모았다. 그런 점에서 우리 병원은 이미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한다. 환자에게 최고의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의료진 간 협업과 소통이 잘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연수를 바탕으로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환자와 의료진뿐만 아니라 의료진 간의 소통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고, 재활의학팀 내 적극적인 소통이 이뤄질 수 있도록 나부터 노력해야겠다는 다짐을 했다.

2014년부터 우리 병원에서 물리치료사로 근무하고 있는데 이번 연수를 통해 정말 많은 것을 보고 배울 수 있었다. **자신이 전문으로 하는 분야에 대해 끊임없이 공부하고 연구하는 것, 그리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주저하지 않고 도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앞으로는 노인재활치료뿐만 아니라 중추신경계 발달치료, 심장, 호흡, 근골격계 재활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 우리 병원은 직원들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나의 성장 이야기'에서는 국내외 교육에 참여한 직원들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합니다.

“끊임없이 배우고 노력하는 간호사가 되겠습니다”



외과간호1팀 이수정 사원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102S 병동에서 간이식 환자를 간호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식 환자들은 면역억제제 복용으로 인해 감염에 취약하기 때문에 감염 예방에 가장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수술 후 누워 지내던 환자가 잘 회복해 두 발로 걸어 일반 병동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볼 때 큰 보람을 느껴요.

일하면서 힘든 점은 신규 간호사라서 새롭게 경험하는 일이 많고 아직 서투릅니다. 담당 환자에게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발 빠르게 대처하지 못할 때도 많아요. 부담이 크지만 혼자가 아니라 선배, 동료 선생님들과 늘 함께 일하고 배우며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같은 상황이 또 발생했을 땐 더 능숙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기억에 남는 환자가 있다면 폐가 좋지 않은 환자가 있었습니다. 고농도 산소를 공급받던 어느 날, 산소포화도 유지가 잘 되지 않았습니. 환자 스스로 가래를 뱉고 심호흡을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하며 밤새 곁을 지켰습니다. 며칠 뒤 다시 만난 환자의 상태는 다행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가장 힘들고 불안한 시기에 잘 돌봐 주셔서 고맙습니다”라는 보호자의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나의 작은 행동 하나가 환자와 보호자에게는 훨씬 크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환자를 간호해야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고마움을 전하고 싶은 동료가 있는지 같은 날짜에 함께 102S 병동으로 입사한 동기 간호사가 있습니다. 모든 게 낯설던 입사 초기, 옆에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마음이 편안했는지 몰라요. 지금도 서로를 이해하며 지지해 주는 든든한 버팀목이랍니다! 지면을 빌려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앞으로 이루고 싶은 목표는 소통을 잘하는 간호사가 되고 싶습니다. 환자의 회복에 있어 의료진과의 소통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매일 체감합니다. 환자의 말에 조금 더 귀 기울이고 아픔에 공감해야겠다고 늘 다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환자에게 제공하는 간호의 부족한 부분과 개선할 부분을 찾기 위해 항상 고민하는 간호사가 되고 싶습니다.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배우고 노력해 간호의 질을 높이고 환자 안전에도 기여하는 간호사가 되겠습니다!

※ ‘AMC 루키’는 각 부서의 신입직원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본인을 알리고 싶은 신입직원, 함께 일하고 있는 동료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나만의 마라톤을 이어갑니다



외과간호1팀 김진영 선임기능

아들의 추천에 가벼운 마음으로 보게 된 영화 ‘1947 보스턴’ 처음엔 서윤복이 누군지 몰랐다. 마라톤이라면 손기정은 들어봤어도 서윤복은 내게 낯선 이름이었다.

1945년 광복 이후 많은 청년이 제2의 손기정을 꿈꾸며 달린다. 그 중 한 명이었던 서윤복은 가난 때문에 꿈을 포기할 상황에 놓인다. 남승룡 코치와 손기정 감독은 촉망받는 마라톤인 서윤복을 끝까지 설득해 함께 보스턴으로 향한다. 하지만 미국에 도착한 그들에게 미국마라톤협회는 태극기가 아닌 성조기를 달고 뛸 것을 강요한다. 조선에 돈이 없어 미군정 소속으로 참가하는 대회이기 때문이다. 과거 일장기를 달고 뛰어야 했던 손기정 감독의 치욕이 되살아나면서 그들은 가슴에 태극기를 달기 위한 항의를 멈추지 않는다. 결국 서윤복은 성조기가 아닌 태극기를 가슴에 달고 레이스에 나선다.

대부분 보스턴 마라톤을 완주한 경험을 가지고 있을뿐더러 우승 전적이 화려한 세계적인 선수들 속에서 그 누구도 서윤복의 우승을 예상하지 못했다. 국제 경기 이력이 없고 42.195km를 단 한 번 완주해 본 게 전부인 서윤복은 경기가 끝날 즈음 반전을 일으킨다. 쟁쟁한 우승 후보들을 제치고 가장 먼저 결승선에 도착하면서 보스턴에 애국가를 울린 것이다.

영화를 보면서 나의 일과 꿈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됐다. 내가 우리 병원에서 일하게 된 건 힘들고 어려운 환자들을 도우며 항상 웃게 해주고 싶어서였다. 그러나 현장에 있다 보면 식사를 거를 때가 많고 하루에도 몇 시간씩 서있거나 뛰어나기가 부지기수였다. 나의 이상을 이루기에 현실은 버겁게만 느껴졌다. 그때마다 동료들과 환자들에게 오히려 행복을 나눠

받으면서 내가 하고자 했던 일들을 실천할 용기가 생겼다. 내 행동이 우리 병원의 이미지이자 환자들에게 우리 병원을 다시 찾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자 다시금 달릴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

서윤복에게 닮은 시련처럼 나에게도 2019년 큰 시련이 찾아왔다. 암에 걸린 것이다. 항상 환자들 곁에 있으면서 투병 생활이 힘든 줄은 알았지만 직접 겪어보니 그 이상이었다. 많이 지치고 힘든 과정을 곳곳이 버틴 끝에 내 도움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다시 돌아올 수 있었다. 내가 꿈꿨던 일들을 계속해서 이뤄나갈 수 있다는 의미였다. 영화 마지막에 서윤복이 보스턴 마라톤을 끝이 아닌 시작으로 여기며 대한민국 마라톤이 대중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간 것처럼 말이다.

행복을 나누는 일은 단거리 경주가 아닌 마라톤이라는 생각이 든다. 어려운 일이 찾아오고 때로 포기하고 싶어도 든든한 동료들이 있고 행복을 주고받는 환자들 이기에 나는 계속해서 나만의 마라톤을 이어가려고 한다. 혹시 지금 걷고 있는 길이 지치고 힘든 직원들께 앞으로 나아갈 힘이 되어줄 이 영화를 추천한다.



1947 보스턴
감독 : 강제규
각본 : 이상현, 손광수
장르 : 드라마, 스포츠, 시대극
출연 : 이정우, 임시완, 배성우, 김상호

※ 병원보는 직원들이 감상한 작품과 후기를 소개하는 '컬처 & 라이프' 코너를 운영합니다. 영화, 뮤지컬, 책 등을 통해 삶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고 싶은 직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선생님과 함께라면 거뜬히 이겨낼 수 있어요

저희 아버지는 지난 3월부터 서울아산병원에서 항암화학 요법 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거의 매일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교수님의 설명을 듣고 아버지는 크게 낙담하셨어요. 치료 시작 직전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싶다고 말씀하시기도 했죠. 약해진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엄마도 저도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걱정을 뒤로하고 맞이한 첫 번째 치료 날. 2시간을 기다려 아버지의 순서가 되었습니다. 박다영 방사선사 선생님이 환한 미소와 친절한 목소리로 아버지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제가 다 기분이 좋아지는 느낌이었죠. 아버지도 기분이 좋았는지 치료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에 밝은 표정으로 선생님 이야기를 하셨어요. 박다영 선생님 덕분에 시름을 덜고 편안한 마음으로 치료를 시작할 수 있었다고 말입니다.

이제 막 7번째 치료를 마쳤습니다. 만날 때마다 항상 눈을 맞추고 인사를 해주며 사소한 질문에도 귀찮은 내색 없이 친절하게 대답해 주는 박다영 선생님이 있어 든든합니다. 선생님과 함께라면 아버지가 30회 넘게 남은 치료도 거뜬히 이겨 내실 수 있으리라 믿어요. 이 글에 다 담지 못하는 감사의 마음을 선생님께 전합니다.



방사선 치료 첫날, 다른 환자보다 유달리 더 긴장해 있던 환자분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마음속 걱정이 경직된 몸에서 그대로 느껴졌죠. '방사선'이라는 말 때문에 치료를 두려워하는 환자들이 많습니다. 환자가 불안을 덜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의료진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미소 가득한 표정으로 따뜻하게 맞아주는 것만으로도 환자가 '걱정했던 것보단 별 거 아니네'라고 느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환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치료 여정에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방사선종양팀 박다영 사원

※ '감사우체통'은 고객이 보내온 고마운 마음과 직원들의 이야기를 공유하는 코너입니다. 소개하고 싶은 마음 따뜻한 이야기가 있다면 병원보 편집실로 연락 주십시오.

독자의 소리

뉴스매거진에 대한 감상, 동료 직원에 대한 칭찬, 신입직원 소개 등 직원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독자엽서를 통해 편집실로 전달됩니다. 좋은 의견을 보내주시는 독자들의 목소리 일부를 소개합니다. 선정된 직원에게는 달마이어 이용권을 드립니다.



어린이병원간호팀 정은선 대리

이승규 교수님께서 국민훈장을 받았다는 소식이 가장 좋았습니다. 의료 불모지였던 우리나라가 간식 분야에서 세계 1위가 되기까지 교수님께서 노력해 오신 발자취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전 세계 간식 분야를 선도하시는 이승규 교수님, 존경합니다.

진단검사의학팀 조수옥 차장

'나의 성장 이야기 - 고객의 말에 경청하고 공감하기' 코너를 읽고 많은 위로 받았습니다. 환자에게 불만과 공격적인 말을 들으면 마음속에 상처가 남을 때도 있습니다. 송주연 선생님이 받은 불만고객응대 과정 교육내용 중 '불만의 대상은 내가 아니라 상황'이라는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또한 '내가 환자 입장이라면 어땠을까?' 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저도 이 교육을 받고 싶습니다.

방사선종양학과 김연주 조교수

'헬스에디터 - 발이 부어 신발이 맞지 않는다면? 림프부종을 의심해 보자' 코너가 유익했습니다. 방사선치료를 시행하는 의사로서 불가피하게 림프부종 환자를 많이 만나게 됩니다. 이 글을 참고삼아 환자께 보다 더 나은 치료를 제공하고 증상에 대한 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정보를 제공해 주신 박창식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어린이병원간호팀 김희영 차장

'AMC리얼스토리 - 저는 엄마이자, 암 환자입니다' 코너가 감동적이었습니다. 저도 세 아이의 엄마입니다. 지금은 건강하지만 언제든 건강이 안 좋아지는 날이 올 수도 있을 텐데 그땐 어떻게 해야 할 지 걱정할 때가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다시 한번 건강의 소중함을 생각하게 되네요.

외과간호2팀 정미현 과장

'감사우체통 - 실력과 따뜻한 마음을 모두 갖춘 선생님' 코너가 좋았습니다. 환자의 눈높이에 맞춰 식사량, 식사방법, 주의사항 등을 꼼꼼하게 설명해 주는 김유미 영양사님의 모습에서 열정과 노력이 느껴졌습니다. 훌륭한 동료들과 함께 일한다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SNS 돌보기

[하루] 심장내과 중환자실 의사



출연: 심장내과 김아람 임상전임강사 (심장내과중환자실 전담의)

심혈관계 중환자 치료는 작은 징후에도 적절하고 신속한 대처가 필요해 전담의가 상주할 경우 사망률이 47% 감소한다고 합니다. 우리 병원은 2018년부터 심장내과중환자실 전담 전문의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멈춰가는 심장을 살리기 위해 매 순간 긴박하게 움직이는 김아람 임상전임강사. 아무리 힘든 환자라도 좋아질 수 있다는 믿음으로 회복을 약속하는 현장을 따라가 봅니다.

[손위생] 병원균이 눈에 보인다고?



의료기관에서는 환자 안전은 물론 직원 안전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안전을 위한 첫 걸음은 손위생입니다. 하지만 바쁘게 일하다 보면 병원균의 위험성을 간과하기 쉽습니다. 어느날 갑자기 게임 속 세계로 들어온 직원 A씨. 손위생 퀘스트를 수행해야 병실을 탈출할 수 있게 된 A씨의 이야기를 통해 감염관리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 보는 것은 어떨까요?

